

공공보건의역사

역병(疫病)과 문명

1. 疾病과 文明

질병은 보는 각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질병은 각 개인에게 전염된 감기일 수 있으며 자기 자식에게 걸린 단식일 경우도 있겠으며 친구에게 발생된 암일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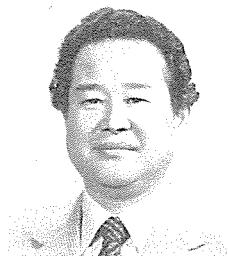
또한 이런 질병때문에 학교에 나가지 못하거나 회사에 결근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생겨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질병은 나와 내 어린이의 교통사고일 수도 있으며 친구에게 발생된 암(癌)에 따른 고통일 수도 있을 것이다.

확실히 질병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 개인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질병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형태로 생겨날 때 그 사회와 국가의 질병이 되며 우리들이 살아가는 문명의 질병이라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질병은 확실히 개인적 차원에서 나아가 사회적 존재이며 해당문명의 중요한 특성이라 하겠다. 따라서 질병현상(疾病現象)은 개인적인 관심사에서 나아가 사회적 존재이며 해당문명의 중요한 결정요인이고 따라서 우리인간이 살아온 역사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였음을 알 수 있다.

확실히 이와 같은 질병의 또다른 측면을 따진다면 생물학적 특성이라 하겠다. 코감기에 걸리면 코속에 인플렌자의 병원체가 염증을 일으키며 각종 압은 해당장기에서 이상증식을 일으킨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물학적 현상에서 나아가 질병을 좀더 폭넓게 보았을 때 대부분의 질병은 해당사회와 문명에 의해 영향을 받



■ 허 정

고 발생하는 사회적 존재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유기수는중독이나 기관지천식 같은 산업공해와 관련된 환경병(環境病), 교통사고 및 노이로제와 같은 질병은 확실히 오늘날의 문명이 크게 영향을 끼친 건강이상 내지 질병이라 하겠다. 결핵(結核)이나 성병같은 경우는 물론 콜레라나 장티푸스같은 급성전염병의 경우에도 병원균의 존재만으로 해당질병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병원균이 전파변식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처음으로 질병은 성립된다.

이러한 조건에는 자연적인 것도 있으나 그 대부분이 인간 스스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해당사회나 문명이 이러한 질병의 유행을 결정하기 쉽다.

역사상 전쟁이나 빈곤이 질병의 온상(溫床)이 되어왔다는 사실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의식주는 질병의 양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들이 먹는 식품의 내용은 질병에 깊은 영향을 끼치며 의복이나 난방, 조명같은 주생활도 질병발생에 관계가 깊다. 역사적으로 볼 때 모든 문명과 사회는 그 나름대로 해당문명과 해당사회의 질병발생에 영향을 끼쳤다.

이와는 반대로 질병은 그 사회와 문명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많았다. 구라파역사상 높은 수준의 문명을 자랑했던 그리스와 로마가 멸망한 중요한 원인중 하나는 바로 당시에 유행했던 전염병이었다.

14세기에 구라파를 휩쓸었던 무서운 흑사병은 구라파 역사상 근대로 향한 개화

를 위한 일종의 진통이었으며 발진티푸스는 볼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을 러시아로부터 참패시킨 가장 큰 원인이었다.

아무리 우수한 병기도 국가와 사회의 운명에 영향을 준 정도로 비추어 본다면 발진티푸스를 매개했던 작은 이나 페스트를 전파시킨 진드기보다 크지 못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말라리아때문에 문명의 몰락을 가져왔거나 콜레라나 이질때문에 역사가 바뀌어진 경우도 있었다.

아마도 결핵이나 매독이 없었다면 근대문명은 최소한 구라파에 있어선 또다른 모습을 드러냈다고 믿어진다.

확실히 문명은 질병을 만들어내고 또한 질병은 문명에 큰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질병에는 역사적 속성이 있으며 질병의 역사적 범칙 또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 분석을 통해 우리인간이 걸어온 발자취를 소상하게 알아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불행히도 인간의 질병에 대한 의학적 지식은 크게 발달되어 왔으나 질병의 역사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기울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은 인간의 역사를 통해 언제나 일정할 뿐 바뀌어진 것은 이러한 질병에 대한 인간의 지식뿐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보다 엄격하게 과거를 분석해 보건대 질병도 시대에 따라 움직이고 변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사라진 질병이 있는가 하면 새로이 생겨난 병도 많다. 중세기의 유행성 무도병(舞蹈病)이나 근세 영국에서 흔했던 발한병은 오늘날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으며

간염은 새롭게 문제된 질병임에 틀림없다. 같은 암이라도 고대 이집트인의 암과 오늘날 20세기의 암과는 그 발생양상이 다르고 같은 매독균이라 해도 시대에 따라 그 성질이 다르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볼 때 질병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남겨주고 있으며 이와 같은 질병에 대처해서 우리 인간이 쓴 처치를 보면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 2. 疾病과 그 病因

이러한 질병에 많은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전세계적인 유행을 불러 일으킨 중세후기의 흑사병(黑死病) 유행이었다.

구약성경에도 나오듯 구라파에선 13세기까지 가장 무서운 사회적 역병은 나병이었다. 나병환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는 존재로 보아 건강상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로부터 추방되었으며 「살아있는 사자(死者)」로 평생동안 버림을 받았다.

나병환자의 격리에서 시작된 구라파의 전염병관리 대책은 중세기에 가장 무서웠던 페스트의 대책에서도 또다시 이용되고 더욱 강화되었다.

아직도 불확실한 부분이 많으나 14세기의 세계적인 흑사병유행은\*중아시아 초원지대에 살던 들쥐에 보균상태로 있던 흑사병이 서쪽으로 확대되어 1346년 봄에 이르자 흑해에 이르렀고 이곳에서 배를 타고 콘스탄티노플, 제노아, 베니스 등 유럽의 여러 항구로 옮겨진 후 1348년초에 이르자 구라파내륙에까지 확대되었다.

실제로 현대적인 검역제도는 이러한 나병과 흑사병의 대유행을 거쳐 얻어낸 보건대책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1348년 3월 20일에 세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지역사회 위생문제를 다루고자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는 오염된 선박이나 물품, 그리고 사람들을 항구밖 선박이나 외딴섬에 격리시키는 권한도 가지게 되었다.

페스트가 전염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졌으나 그것만으로 유행의 기원이나 그 성질에 관련된 모든 의문을 풀어줄 수는 없었다. 만일 전염병이라면 전염병의 원인은 무엇일까. 또 페스트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러한 질문의 해답에는 「갈렌」이 체계화시킨 히포크라테스학설에서 찾을 수 밖에 없었다.

분명히 꼬집어 말할 수는 없겠으나 공기의 변화와 그 부패가 이 병의 유행을 초래한다고 믿었다. 공기의 부패는 각종 유기물의 분해와 썩은 물같은 데서 생겨난다고 믿었다. 따라서 냄새가 나는 낮은 습지나 고인물이 많은 곳은 물론 가축을 길러서 썩은 냄새가 나는 곳과 묘지를 피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썩은 공기를 들이마시면 이러한 변성물질이 우리 몸안의 체액에 들어와서 발병한다고 믿었다.

이러한 이론에 근거해서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전염병관리에 힘썼다. 이러한 장기시설은 중세기를 훨씬 지나 1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으며 전통적인 전염병의 병인론(病因論)으로 군림해왔다.

〈필자=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의박〉